

# 광주광역시청 육상, 구미 아시아선수권서 빛났다

이재성, 男 400m 계주 사상 첫 금 38초49... 대회 新·한국 新 경신 강다솔, 女 400m 계주 한국 新 한국 금 2·은 1·동 1개... 종합 5위

광주광역시청 소속 육상 선수들이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신기록 등과 함께 금빛 질주를 펼치며 한국 육상사의 새 이정표를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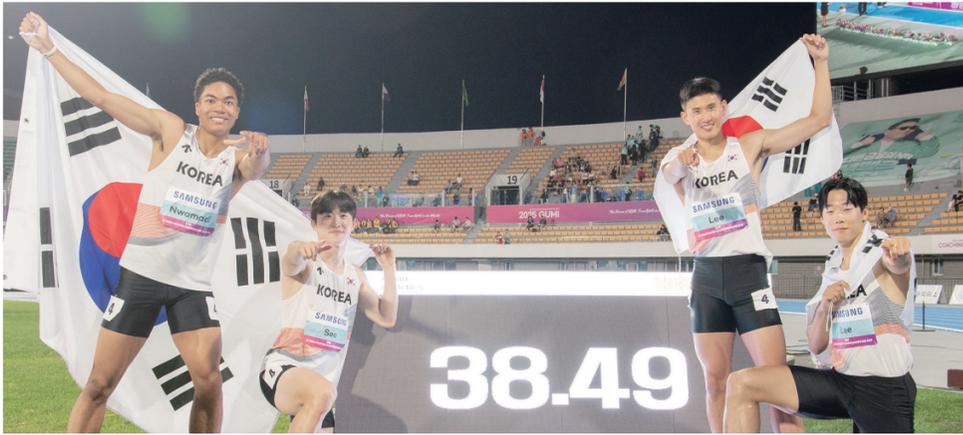
지난달 27~31일 경북 구미시민운동장에서 열린 2025 구미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 광주시청 육상팀 소속 선수는 고승환(28)과 이재성(24), 강다솔(33) 등 3명이다.

이재성은 지난달 31일 열린 이번 대회 남자 400m 계주 결승에서 서민준(서천군청), 나마디 조엘진(예천군청), 이준혁(국군체육부대) 과 함께 38초49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번 기록은 한국 신기록이자, 대회 신 기록이다.

지난 11일 중국 광저우 세계육상릴레이선수권에서 작성한 한국 기록(38초51)을 0.02초 앞당겼고, 동시에 2023년 방콕 대회 당시 태국이 세운 대회 기록(38초55)도 0.06초 경신했다.

또 이번 금메달은 한국 남자 400m 계주 사상 아시아선수권 첫 우승이다. 한국은 이 종목에서 그동안 1981년 도쿄, 1983년 쿠웨이트, 1985년 자카르타, 2023년 태국 방콕대회 등 네 차례 동메달



광주광역시청 이재성(오른쪽)이 지난달 31일 오후 경북 구미시민운동장에서 열린 '2025 구미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계주 400m 결선에서 한국신기록이자 대회신기록인 38초49를 세우며 우승한 뒤 나마디 조엘진(예천군청), 서민준(서천군청), 이준혁(국군체육부대)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을 획득한 바 있으나, 금메달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성은 이날 결승에서 서민준과 나마디 조엘진에 이어 3번 주자로 나서 baton을 받자마자 선두권으로 치고 나갔고, 마지막 주자(앵커) 이준혁에게 baton을 넘겨주며 금빛 질주를 펼치는데 뛰어난 역할을 했다.

이재성은 광주시청 육상팀을 통해 "경기 때 서로를 믿고 뛰자고 다짐한 결과가 좋은 성적과 기록으로 이어져 만족스럽다"며 "앞으로 세계선수권 출전을 목표로 잘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강다솔은 같은날 열린 여자 400m 계주 결승에서 이은빈(해남군청), 김소은, 김

다은(이상 가평군청)과 함께 44초45의 기록으로 한국 신기록을 작성했다.

한국은 중국, 인도, 태국에 이어 4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2014년 작성된 한국기록 44초60을 11년 만에 새로 썼다.

계주팀의 만년니 강다솔은 광주시청 육상팀을 통해 "11년 전 이 종목을 한국 기록을 경신했을 때도 만년니였는데, 한창 전성기를 맞이한 친구들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너무 영광스럽고, 다시 한번 한국기록을 경신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개인 최고 기록과 100m 한국기록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승환은 같은날 열린 남자 200m 결선

에서 20초72로 6위에 머물렀다.

고승환은 전남인 30일 조 예선에서 20초69를 기록하고 전체 2위로 준결선에 올랐다. 준결선에서는 20초82를 기록, 전체 3위로 결선에 진출해 메달 획득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결선에서 곡선 주로까지 대등한 레이스를 펼쳤으나 직선 주로에서 긴장한 탓에 힘이 들어가 속도를 올리지 못하면서 6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심재용 광주시청 육상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이번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서 뛰어난 활약으로 대한민국 육상의 위상을 높이고 광주 육상의 저력을 다시 각인시켰다"며 "오는 9월 도쿄세계육상선수권대

회에도 우리 선수들이 출전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이재성과 강다솔 선수의 눈부신 활약은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 육상의 새로운 역사를 쓴 값진 성과"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보여준 뜨거운 열정과 투지는 광주시의 체육 꿈나무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등 총 4개를 획득하고 중국(32개) 인도(24개) 일본(28개) 카자흐스탄, 카타르(이상 6개)에 이어 종합 5위로 마쳤다.

최동한 기자

## 2025 KBO 올스타 팬투표 오늘부터 시작

베스트12 후보 120명 공개

2025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에 출전할 '베스트12'를 가리는 팬 투표가 2일부터 시작된다.

KBO는 팬 투표 개시와 함께 총 120명의 베스트12 후보 명단을 공개하고, 오는 22일 오후 2시까지 21일간 투표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팬 투표는 신한 SOL뱅크 앱, KBO 공식 홈페이지, KBO 앱에서 각각 하루 1회씩 총 3회 참여할 수 있다. 중간 집계 결과

는 6월 9일과 16일 두 차례 발표된다.

최종 집계는 팬 투표(70%)와 선수단 투표(30%)를 합산해 결정되며, 결과는 6월 23일 발표된다.

KBO는 매일 투표에 참여한 팬을 대상으로 LG 스타바이미2, 다이슨 핫앤쿨, 에어팟4, 스타벅스 이용권 등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신한 SOL뱅크 앱으로 투표한 참가자에게는 마이신한포인트 5포인트와 쏘야구플러스 야구공 5개가 매일 지급된다.

민현기 기자

## 전남드래곤즈, 홈 3연승 질주... 2위로 꺾춤



프로축구 K리그2 전남 드래곤즈가 홈 3연승을 질주했다. 홈에서 강세를 보인 전남은 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선두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남은 지난달 31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14라운드 화성FC를 상대로 3-2로 승리했다.

전남은 5-2-3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나섰다. 골문은 최봉진이 지켰고, 최정원, 고태원, 유지하가 스리백을 구성했다. 김예성과 안재민이 양쪽 윙백, 알베르티와 윤민호가 중원에 배치됐고, 공격진에는 주장 발디비아와 호난, 정강민이 포진했다. U22 자원인 안재민과 정강민이 선발로 나서면서 교체 카드 운영에 여유를 더했다.

전남은 경기 초반부터 불아붙였다. 전반 4분 발디비아의 크로스를 호난이 헤더로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터뜨렸다. 그러

나 전반 10분 역습 상황에서 동점골을 허용했고, 전반 34분 다시 발디비아가 중거리슛으로 골망을 흔들며 리드를 되찾았다.

후반 25분에는 화성의 조동재가 동점골을 기록하며 승부는 원점이 됐지만, 후반 32분 알베르티의 슈팅이 수비 맞고 골절대 결승골로 이어지며 전남이 끝내 승리를 챙겼다.

이로써 전남은 시즌 개막 이후 홈 전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강한 홈 경기력을 입증했다. 빠른 역습과 세트피스에서의 집중력, 수비진의 안정적인 조직력까지 균형 잡힌 경기 운영이 빛났다.

김현석 전남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부상자가 많아 베스트 멤버들의 경기력과 차이를 있었지만, 대체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투혼이 오늘 승리의 원동력이었다"며 "앞으로도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민현기 기자



파리 생제르맹(PSG)의 이강인(왼쪽)과 선수단이 1일(한국시간) 독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4-2025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인터 밀란을 5-0으로 완파한 뒤 시상대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고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AP/연합뉴스

## PSG, 챔피언스리그 우승... 이강인, '뽀 최초' 트레블 달성

리그·FA컵·챔피언스리그 우승 박지성 이후 17년 만에 위업

'한국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이 아시아 선수 최초로 유럽 '트레블'(리그·FA컵·챔피언스리그 우승) 기록을 달성했다. 비록 출전 기회는 없었지만, 우승 세리머니에서 포효한 이강인의 모습은 대역의 주역으로 손색이 없었다.

이강인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PSG)은 1일(한국시간) 독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4-2025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인터 밀란을 5-0

으로 완파하고 사상 첫 유럽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PSG는 리그1과 쿠프 드 프랑스를 포함해 창단 이후 처음으로 트레블을 완성했다.

이강인은 이날 결승전에서도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으나, 조별리그 8경기 포함 챔피언스리그에서 총 11경기에 출전한 공로로 트로피 주인공이 됐다. 특히 아스널 원정에서 세로톱 스트라이커로 나서는 등 전전후 자원으로 활약했다.

이강인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박지성 이후 17년 만의 한국 선수 두 번째 사례다. 박지성은 2008년 맨체스터 유나이티

드 소속으로 UCL 우승을 경험했으며, 이강인은 그 계보를 잇는 선수가 됐다.

이번 트로피는 이강인 개인 통산 네 번째 타이틀이자 PSG에서 맞이한 또 하나의 금자탑이다. 특히 프랑스 내 3관왕(리그, FA컵, 슈퍼컵)을 넘어 유럽 챔피언까지 더한 '쿼드러플' 달성은 아시아 선수 최초다.

우승 세리머니에서 이강인은 주장 마르퀴노스 옆에서 트로피를 함께 들어올리며 기쁨을 만끽했다. 정규 출전 여부를 떠나 PSG의 유럽 정복 여정에 기여한 상징적 순간이었다. 최동한 기자